

외식업 종사자 '면봉 검사' 개선 의지 실증

10만여명 수치심 느끼는데 광주시·구청은 예산 타령만 식약처-질병관리본부도 "우리 업무 아니다" 핑퐁 게임

10만여 광주지역 외식업종사자와 아르바이트생들이 남·여 구분없는 공동 공간에서 '셀프 향문면봉 검사'를 받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7월 10·11일자 6면>과 관련, 광주시와 5개 보건소가 개선을 약속해 놓고도 두 달여가 넘도록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특히 외식업 종사자들을 대변해야 할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여성회원들로부터 '향문면봉 검사가 수치스럽다'는 민원을 접수받았고, 목살했다. '광주시에 민원을 제기해도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체 판단에 따라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 외식업중앙회는 매년 광주시로부터 수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정부의 위생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도 서로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등 '핑퐁게임' 중이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2만1000여곳의 업소에서 10만여명(아르바이트생 포함)에 달하는 외식업 종사자들이 보건소에서 해마다 한차례씩 1500원을 내고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받고 있다.

검사과정은 대상자들이 14cm 길이의 '투브 면봉'을 스스로 향문에 삽입해 체면을 묻혀 제출하면, 장티푸스 등 기타 수인성 질병 여부 등을 검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검사가 남·여 구분없는 1개층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지다보니, 여성은 물론 남성들도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도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난 7월 12일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시스템 개선'을 주제로 회의를 여는 등 대책을 논의했지만, 아직까지 달라진 것은 사실상 없다. 기존에 있는 화장실의 1개소를 검사 전용 화장실로

만들고, 화장실 문 앞에 '향문 면봉' 사용 설명서를 붙인 게 전부다.

이마저도 일부 시민은 화장실 1개소를 향문면봉 검사 전용으로 지정함에 따라 검사 후 화장실을 나올 때 더 수치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진석 광주시 건강정책과 보건기획담당은 "광주시 역시 개선 필요성을 충분히 느꼈다"면서도 "현재 예산이 없어 최소한의 조치만 취했다. 예산이 확보되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북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여·55)씨는 "담당 공무원부터 직접 향문 검사를 해봤으면 한다"면서 "시민의 기본 인권조차 지키지 못하는 데 무슨 '인권 도시' 광주냐, 다음 선거 때 꼭 표심으로 심판하겠다"고 분노감을 드러냈다.

음식업 종사자의 고통을 대변해야 할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지회도 광주시와 마찬가지로 뒷짐만 지고 있다. 이들은 매일 회원들로부터 1만원의 회비까지 받고 있지만, 정작 회원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놓고 일부에서는 광주시에서 지원금을 받고, 공동으로 위생검사를 하는 등 사실상 관련단체의 성격이 강한 탓에 행정기관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광주지회는 매년 광주시로부터 자율지도활동비 명목으로 3840만원과 음식문화개선협의회 지원금으로 180만원을 받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지회 윤상현 총무부장은 "수년 전부터 여성 회원들 중심으로 (향문면봉 검사과정에서)수치심을 느낀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면서도 "보건증검사에 대해서 개선요청을 광주시에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따로 개선을 요청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 관련 부처도 보건증 검사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 보건증 관리부처인 식약처 관계자는 "향문면봉검사는 질병관리본부 담당 부처"라고 말했으며, 질병관리본부 홍보실은 "담당은 식약처 식품정책조정과"라고 설명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수사정보 제공하고 금품 받은 광주경찰청 현직 경찰관 구속

광주에서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업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철우)는 "지난 12월 학교급식 납품비리와 관련해 공무원 비밀누설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광주경찰청 A경위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12월 광주경찰청이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한 식자재 공급업체 사장 B씨에게 수사 진행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 등을 받은 혐의

다. 당시 B씨의 입찰 비리사건은 A경위와 같은 팀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수사 중이었다. 검찰은 앞서 A경위의 비위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4일 A경위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B씨는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급식 관련 식자재를 납품하는 위장업체 10개를 설립한 뒤 위장업체 대표들에게 자신이 제시한 금액대로 응찰하게 하는 방법으로 483회에 걸쳐 86여원을 낙찰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영산강변 낚시하다 실종 ... 중국 동포 숨진 채 발견

광주 영산강변에 낚시하러 갔다가 실종된 70대 중국 동포가 5일 만에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2분께 중국 동포 A(74)씨가 북구 용전동 영산강에 낚시를 갔다가 며칠째 귀가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8일 오후부터 A씨가 낚시를 한 광주영산강 용산교 인근에는 그가 타고 간 오토바이만 남아 있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최근 폭우로 불어난 강물에 휩쓸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200여명을 동원해 수중수색과 헬기·드론을 이용한 수색을 진행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낚시하던 지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하류에서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평소 낚시를 가던 3~4일 동안 귀가하지 않고 낚시에 집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에는 지난 11일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최고 96mm의 비가 내리기도 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법원 "자살한 살인범 가족, 피해자 유족에 배상해야"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용의자의 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수원지법 민사14부(이정권 부장판사)는 13일 수원 여대생 납치·살해 사건의 피해자 유족 3명이 용의자 가족 2명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A(당시 22·여·대학생)씨는 지난 2015년 7월 15일 오전 9시 45분께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의 한 풀숲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새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 변화가에서 실종된 A씨는 경찰 수사를 통해 인근 회사 임원 B(당시 45)씨에게

납치돼 회사 화장실로 끌려간 뒤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가 살해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범행 당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야산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이에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고 A씨 유족은 사건 발생 1년여 만인 지난해 10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범인이 사망해 범행을 저질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이 유족들에게 넘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배상명령제 등의 법적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추석 맞이 쌀 100포 기증 13일 광주시 북구청 광장에서 추석맞이 쌀 나눔회 회원 '정상기업'(대표 이정오)이 백미(20kg) 100포를 북구에 기증하고 있다. 기증된 쌀은 북구지역 사회복지단체나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민변 "집배원 사망사건 부당노동행위 조사해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이하 민변)와 민변 노동위원회는 13일 공동성명을 통해 "우정사업본부는 고 이길연 집배원(서광주우체국)의 사망사건<광주일보 9월 6일자 6면>과 관련해 진상을 규명하고 순직을 인정

해야 하며, 인력확충 등을 통해 살인적인 근무환경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무 중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당한 이 집배원은 지난 5일 '두렵다. 이 아픈 몸을 끌고 출근을 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하네.

가족들 미안해'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민변은 "사측의 무리한 압박에 의한 '순직'이 분명하다"면서 "이 집배원의 죽음이 단순자살이 아닌 만큼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또 "고인이 된 이 집배원이 사고를 당한 지난 8월 10일 당시 서광주우체국

은 '무사고 1000일'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앞두고 있었다"면서 "사측이 목표달성을 위해 산재처리가 아닌 일반병가로 처리하도록 하고, 이틀간 근무한 것으로 해줄 테니 쉬고 나와 근무하도록 하는 등 출근을 종용한 사실도 드러난 만큼 고용노동부는 산재은폐 등에 대한 특별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음식점서 낚은 슬리퍼 두고 다른 손님 '외제 샌들' 슬쩍



음식점에서 자신의 낚은 슬리퍼를 놔두고, 다른 손님의 '독일제 샌들'을 신고 간 30대 남성이 경찰서행.

13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A(30)씨는 지난달 18일 새벽 1시50분께 광주시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업무차 광

주를 방문한 B씨(37)의 독일제 샌들(10만원 상당)을 신고 갔다가 걸렸다.

경찰은 CCTV 분석 및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확보한 끝에 A씨를 붙잡았는데,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내 신발인 줄 알았다"며 선처를 호소.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부안 숙박시설(모텔) 매매·임대

여름성수기 펜션 영업가능



격포해수욕장, 대명리조트, 해변가 5분
토지 506평, 건물 430평(2개동 룸43개)
직접 운영시 월 수익 1500만원 가능

감정가 16억 → 매매가 9억
(용 6억, 보 1억, 실투자 4억) ★즉시임대가능★

직매 010-7384-7800

영광주택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내부개끗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감정가 1억 1천
매가 9천8백

010-6670-9800

법률경매 (주)대신경매 노후대비 최적합

- 1) 상무지구 치평동 상가 1층
감정가 16억 → 최저가 5억7천
- 2) 동구 금남로 충창로 코네(15층 상가건물)
감정가 251억 → 최저가 175억(특A급)
- 3) 남구 진월동 (상가주택)
광주대 3분거리, 월수익 5백 이상
감정가 7억5천 → 최저가 7억5천
- 4) 남구 진월동 (5층 상가건물)
감정가 18억 → 최저가 18억
- 5) 북구 신안동 (무인텔)
감정가 51억 → 최저가 36억
- 6) 북구 양산동 공장 (토지 3653㎡, 건물 3971㎡)
감정가 39억 → 최저가 17억
- 7) 북구 중흥동 (3층 상가건물)
감정가 9억6천 → 최저가 9억6천

특수물건, 절반물건, 상가.토지, NPL전문

경매교육

매주 월요일 개강
기초부터 실전까지
062-382-5500